

# 인생 100세 시대...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 귀어귀촌종합센터와 귀어·귀촌의 비전



최 덕 부 국립수산물과학원 대외협력과 서기관



지난 10월 2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열면서 어느 귀어인이 도시생활을 접고 어촌에 정착하면서 다짐했다던 말이 떠올랐다. '자강불식(自强不息) 후덕재물(厚德載物)', 주역(周易)에 나오는 말로 '자연을 본받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강해지고 땅이 자애롭게 만물을 싣고 기르듯 덕행을 쌓다'라는 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창업정신으로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던 귀어인의 간절함으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개소하였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55~63년생), 전원 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으로 귀농·귀촌과 함께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개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귀농정책은 2009년에 농림부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한 덕분에 2012년까지 정책자금 선정자가 2,710명이며 자금을 받지 않은 자까지 합하면 2013년 32천가구 56천명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된 반면, 귀어정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자가 410명이며 이 중 정부지원자금을 수령한 자가 212명에 불과하고, 정책자금을 받지 않고 귀어·귀촌한 자의 통계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귀농에 비해 그 실적이 미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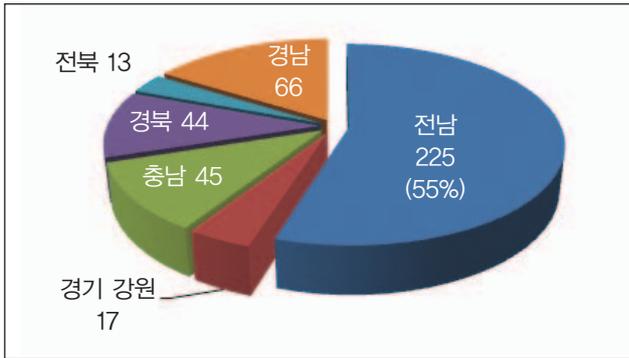
〈표 1〉 최근 5년간 귀농·어 귀촌 정책자금 선정현황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귀어	인원(명)	276	-	65	40	68	103
	금액(억원)	361	-	70	42	98	151
귀농	인원(명)	2,710	202	635	852	1,021	-
	금액(억원)	1,402	106	352	503	6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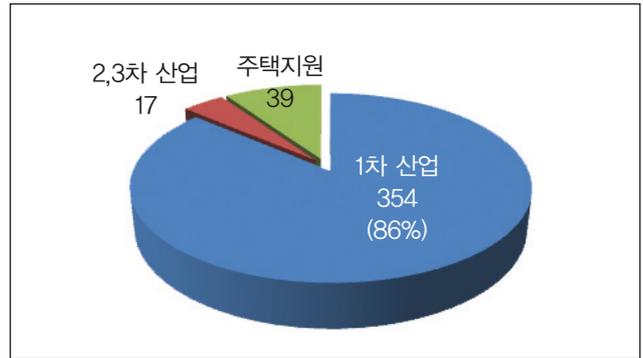
※ (귀농·귀촌 실적) '13년 총 32,424가구(귀농 10,923, 귀촌 21,501)

시·도별 귀어·귀촌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이 225명으로 전체 410명의 55%를 차지하고, 경남 66명(16%), 충남 45명(11%), 경북 44명(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1차 산업(양식, 어선 어업)이 3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2, 3차 가공·유통을 접목한 경우가 17명으로 4%에 불과하다.

〈표 2〉 지역별 귀어·귀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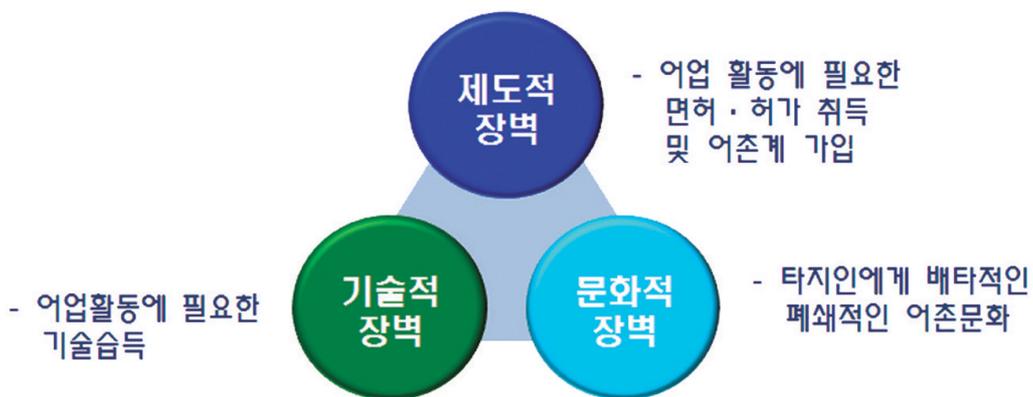


〈표 3〉 업종별 귀어·귀촌 현황



흔히 귀어(歸漁)는 귀농(歸農)보다 어렵다고 말하며, 귀어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제도·기술·문화적 장벽을 이야기한다.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유수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촌계 가입이 어렵고, 어촌계원이 되려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바다와 물을 이해하고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어업활동에 필요한 사전 기술습득이 필요하고, 도시에서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 진입장벽 완화 방안으로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협법」 제15조를 개정하고,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희·부실어장 어업권을 회수해 신규 귀어자에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업권 관리의 효율성을 더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및 원활한 어업 진입·퇴출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선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어선법 개정안 추진 중, '14. 12월 정기국회 상정 예정)에 있다. 아울러, 어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도 '15년부터 1인당 2억4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그림 1〉 귀어를 위한 진입장벽

대출금리도 3%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 외에도 귀어·귀촌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해역별·지역별·유형별 발전모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귀어·귀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정책, 창업 기술교육 및 컨설팅, 시·도별 주요 수산동향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전화(1899-9597, 18세에서 99세까지 귀어귀촌)를 개설하여 종합안내하고, 필요 시 어촌현장에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현장기술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귀어·귀촌 상담은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상담 요청 시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5명의 전문 기술 위원이 분야별(정책, 수산업 제도, 양식기술, 수산가공·유통 컨설팅) 상담을 하고, 필요시 시·도와 금융기관(수협)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원스톱 체제를 갖추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74건(전화 66건, 방문 8)으로 어선 어업이 36건(49%), 양식기술 26건(35%), 정책상담 6건(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어업은 연안복합어업과 낚시어업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양식기술은 양식기반 구축이 용이한 내수면어업과 친환경 유기새우 양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표 4〉 센터 개소 이후 상담실적

(단위: 명, %)

구분	계	어선어업	양식기술	정책안내	가공	기타
인원	74	36	26	6	3	3
비율	100	49	35	8	4	4

상담자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40대(30%), 50대(20%), 30대(19%)순으로 나타나, 귀농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50대로 59%를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귀어의 경우 40대의 젊은 인력의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는 귀어·귀촌이 활성화될 경우 젊은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상담자 분포표

(단위: 명, %)

구분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미확인
인원	74	1	14	22	15	9	3	10
비율	100	1	19	30	20	12	4	14

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sealife.go.kr>)해 온라인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는데, 개소 이후 10월 21일까지 총 방문자 수가 4,117명으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17명이었으며, 주로 귀어·귀촌 준비절차, 지원정책,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방문자의 대부분이 귀어·귀촌을 위한 정보탐색 단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귀어·귀촌 희망인에 대한 안정적인 어촌진입과 조기정착을 위해 종합상담과 함께 양식창업 기술교육과 수산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식창업 기술교육은 수산분야 주요 품목(5개)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05~'13년까지 5개 전문분야, 21품종을 대상으로 583명에 대하여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창업을 희망하는 귀어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실습 장소를 제공함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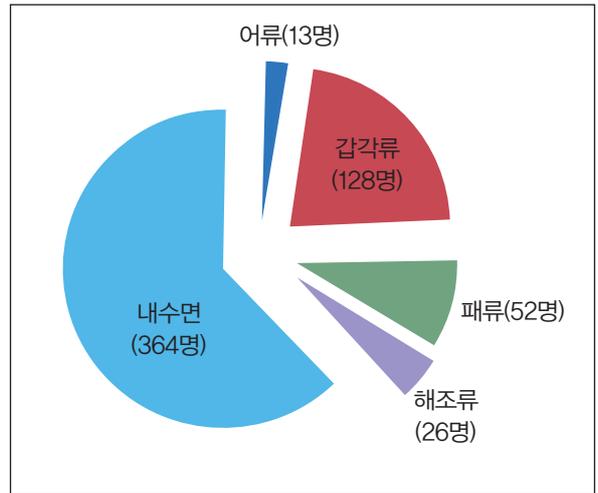
있으며, 금년에는 15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11월 7일 수료식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후, 창업 희망 시 전문가와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지정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수료자 대상 창업률 및 소득분석 결과 창업률은 '05~'10년 46.0%에서 '11~'13년 47.2%로 1.2% 상승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평균 40%씩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귀어가의 조기정착을 위해 창업 과정 중 현안 사항 발생 시 어촌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수산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년부터 '14년 6월 현재까지 52개 지역을 대상으로 309건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그동안의 상담 및 기술지원 현황을 토대로 귀어·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어인들이 어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수협-수산단체 등과 연계하

〈표 6〉 양식창업기술교육현황('05~'13)



〈표 7〉 4개 센터 및 주요 교육품종

창업센터	소 속 기 관	주 요 품 종
패 류	남동해수산연구소	참굴
갑각류	서해수산연구소	흰다리새우
해조류	전략양식연구소(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곰피, 감태
내수면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	미꾸리, 동자개, 관상어, 뱀장어 등

〈표 8〉 수산현장 기술지원 현황

구 분	기 간	운영횟수	운영지역	지원건수	참여인원(명)
계	-	48	52	309	1,456
2010	2~12	10	10	72	203
2011	2~12	11	15	73	355
2012	2~12	12	12	78	306
2013	3~12	12	12	80	372
2014	2~12	3	3	6	220

위해 공익광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귀어귀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귀어에 관심이 있거나 장차 귀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선 어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선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지, 그물 띄는 법과 그물 놓은 법 그리고 어선조종면허를 취득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양식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품종을 기를 것인지, 어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전에 기술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어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본인이 귀어할 곳을 정했다면 그 지역에서 최소 몇 개월 가 능하면 1년 정도는 미리 살면서 주민들과 친밀감을 넓히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무작 정 귀어할 곳에 가서 집 사고 배 사서 조업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 희 망자에게 귀어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융화하 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귀어 후에도 어촌계 가입, 어장 확보 등을 위해 주민 간 대화자리 제공 등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인생 100세 시대, 귀어·귀촌이 어촌과 도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우리 국민 모두 청색혁명의 행운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